

외환리포트

전일동향

전일대비 2.90원 하락한 1,322.80원에 마감

20일 환율은 전일대비 2.90원 하락한 1,322.8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3.80원 상승한 1,329.50원에 개장했다. 글로벌 긴축 경계감에 상승 출발한 환율은 1,332.30원까지 상승하며 장중 연고점을 재차 경신하였다. 하지만 외환당국 매도 물량 유입 및 위안화 약세 진전에 반박하여 1,320원 후반으로 하락하였다. 장 마감 무렵, 독일의 PPI 상승률 둔화 소식에 달러지수가 하락하면서 환율도 하락폭을 확대하여 1,322.80원에 장을 마감하였다. 장중 변동폭은 13.2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983.38원이다.

전일 달러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1329.50	1332.30	1319.10	1322.80	1327.60

전일 엔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984.89	987.41	979.94	986.72

전일 유로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452.14	1459.26	1446.30	1450.74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0.69	-5.7	-13.55	-28.14
결제환율(수입)	-0.2	-4.83	-12	-25.36

*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로 당일자 청약시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

* 해당월 말일(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기준

*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ksure.or.kr/rh-fx/index.do>)에서 확인가능

금일 전망

미 경제지표 부진 및 네고 물량 유입에...1,320원 초중반 중심 등락 예상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2.35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322.80원) 대비 1.05원 상승한 1,321.50원에서 최종 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미 고용 및 제조업 지표 부진에 따른 달러 약세 및 수출업체 네고 물량 유입 영향으로 하락이 예상된다. 미 주간 신규 실업수당청구건수는 24.5만명으로 예상(24.0만명)을 상회하였고, 4월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지수도 -31.3으로 예상(-19.3)을 크게 밑돌았다. 경기지표 부진으로 연준이 5월 FOMC에서 금리 25bp 인상 이후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면서 미 2년 물 국채금리는 약10bp 하락하고, 달러화도 약세를 보였다. 또한, 이번주부터 월말 네고 물량이 조기 유입되는 등 수출업체의 고점 매도가 확대되는 점도 금일 환율 하락에 압력을 더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뉴욕증시 부진에 따른 위험회피 분위기 및 수입업체 결제수요는 하단을 경직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316.67 ~ 1326.67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1567.32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1.05원 ↑
	■ 美 다우지수 : 33786.62, -110.39p(-0.33%)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98.47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12244 억원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